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10	01. 17	01. 24
대표 기도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성경 봉독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김영희 권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이수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 1.2021년 교회 표어-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 2.성경 읽기-개인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읽으면서 말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 3.Zoom 소모임-수요일 오후 7시(주제-믿음의 여인), 금요일 오후 8시(시편 묵상)
 - 4.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 주일예배는 정해진 시각,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357장 다같이
 기 도 Gebet 정용현 안수집사
 성경봉독 Predigttext 빌 3 : 12 - 16(신p321)... 정용현 안수집사
 설 교 Predigt **알만 보고 달리면!** 이상호 목사
 * 찬 송 Gemeindelied 359장 다같이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박재기 집사

하늘 소망

네덜란드는 여로 모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나라입니다. 풍차, 튜립, 암스테르담과 같은 유명 도시의 유람 등은 네덜란드 여행에 빠지지 않는 코스입니다. 그러나 ‘안네의 일기’로 유명한 유대인 소녀 Anne Frank의 집을 방문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여행한 것은 모두 헛것일 겁니다. Anne집은 3층으로 되었으며, 그 집 꼭대기에 올라가면 책장이 있는데 그것을 옆으로 살짝 밀면 비밀통로가 나옵니다. 그 통로 아래에 있는 작은 공간이 바로 독일 비밀 경찰을 피해 유대인 가족이 숨어 지내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열세 살의 어린 소녀 안네는 일기를 썼습니다. 그녀의 일기 중에는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가 어둠의 세력에 점점 포위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는 공포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공포와 학살과 죽음과 전쟁의 건너편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본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곧바로 평화의 이유다. 우리는 이 희망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도 천국을 경험한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싼 공포와 어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머리 위의 하늘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주님이 예비하신 빛나는 천국의 소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 때문에 지금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안에 살라 / 이동원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 거룩한 삶의 상징은 한 순간의 번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비추는 작은 햇불들이다. - Horatius Bonar(스코틀랜드 찬송가 작사가) -